

우리말 바로 알고 사용하자!

◇ 노가리 ◇

말이 많거나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한다.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로, 명태는 한꺼번에 매우 많은 수의 알을 낳다고 한다. 명태가 많은 새끼를 낳는 것과 같이 말이 많다는 것을 빗대어 나타낸 말이다. 노가리의 수만 큼이나 말을 많이 풀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부 사전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나타내는 노가리라는 말에서 비롯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풀이다.

◇ 감질(甘戾)나다 ◇

몹시 먹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이 생기다는 뜻이다. 감질은 감병(甘病)이라고도 하며, 흔히 젓이나 음식을 잘 조절하여 먹이지 못하여 생기는 어린이 병의 하나이다. 증세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여위며 땀이 나고, 목이 마르며 배가 불러 끓고, 시고 시원한 것을 찾으며 영양장애나 소화불량 따위가 나타난다. 어떤 일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몹시 애타게 태우는 심정을 감질의 증세에 빗대어 나타낸 말이다.

◇ 골탕먹다 ◇

크게 곤란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다는 뜻이다. 골탕이란

원래 소의 머릿골과 등골을 맑은 장국에 넣어 끓여 익힌 맛있는 국물을 가리키는 말로, 골탕을 먹는 것은 맛있는 고기 국물을 먹는다는 말이었다. 그러던 것이 '끓다'라는 말이 골탕과 음운이 비슷함에 따라 골탕이라는 말에 '끓다'라는 의미가 살아나고, 또 '먹다'라는 말에 '입다', '당하다'의 의미가 살아나서 '골탕먹다'가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 남 모르는 큰 손해를 입게 되어 곤란을 겪는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 긴가민가하다 ◇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기연(其然)가 미연(未然)가'라는 원말이 줄여서 된 말이다. 한자의 뜻 그대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이 말을 흔히 쓰게 된다. 한편, '기연(其然)가 미연(未然)가'를 줄여서 '기연미연(其然未然)'이라고도 한다.

◇ 꼬드기다 ◇

'남의 마음을 부추겨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이다. 연 날리는 겨울철에 하는 우리의 대표적 민속놀이 중의 하나이다. 연을 날릴 때 연줄을 잡아 젓히어 연이 높이 날아오르도록 하는 기술을 가리켜 '꼬드

긴다'고 하던 데서 온 말이다.

◇ 도루묵 ◇

'은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을 맞아 피난하던 도중에 처음 보는 생선을 먹었는데 그 맛이 별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니 '뚝'이라고 하므로, 그 이름이 맛에 비해 너무 보잘 것 없다 하여 그 자리에서 '은어(銀魚)'라고 고치도록 했다. 나중에 궁중에 들어와 '은어' 생각이 나서 다시 청하여 먹었으나 예전과 달리 맛이 없었다. 그래서 선조가 "은어를 도로 뚝이라고 해라"하고 일렀다고 한다. 이런 유래로 인해 '도로 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발음이 변해 '도루묵'이 되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흔히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 복걸복 ◇

'복걸복'은 복불복(福不福)에서 온 말로, 발음상 외전된 말이다. 복불복(福不福)은 말 그대로 유복(복있음)과 무복(복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것은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로, 똑 같은 경우와 똑 같은 환경에서 여러 사람의 운이 각각 차이가 났을 때에 쓰는 말이다.

■ 출처: 우리말과 관련된 사전들